

중국명문감상



방송통신대학교 황인옥
inok8444@hanmail.net

중국명문감상

☞ 출석수업 범위 : 漁父辭, 陳情表

☞ 과제: 6과(춘야연도리원서)와 12과(애련설)의 원문과 해석 등을 手記로 써서 제출
강의시간에 자세한 설명 예정

☞ 제출날짜 : 11월 1일 (월) 18:00

☞ 제출방법: 학사정보 온라인 제출

☞ 문의: inok8444@hanmail.net

☞ 작자소개

- * **굴원**, 이름은 平
- * 최초의 우국시인, 초사의 시조,
- * 대표작품 : 이소(離騷)
- * 전국시대 초(楚) 회왕의 삼려대부
- * 정적들에게 추방, 멱라수에 투신.
- * 단오절에 굴원을 기림(粽子, 龍舟競賽)

☞ 작품소개

조정에서 추방당한 굴원이 방랑중에 만난 어부와 체세관에
관하여 나누는 이야기

- * 등장인물 : 굴원, 어부
- * 어부의 입장: 세속과 타협, 與世推移
- * 굴원의 입장: 곧고 결백한 처세, 我獨清
- * 초사계통으로 산문체의 변체

屈原이 既放하여 遊於江潭하고 行吟澤畔할새
顏色憔悴하고 形容枯槁어늘 漁父見而問之
曰 子非三閭大夫與아

潭: 못 담. 澤: 못 택. 畔: 두둑 반.

憔: 파리할 초. 憐: 파리할 췌. 槫: 마를고.

문법설명:

既: 이미, 과거형 既放: 이미 추방당하다.

於: 처소격, 於+장소, 시간, 대상, 조건, 상태 등

而: 용언과 용언 연결, 見而問

子: 그대, 2인칭 대명사

非~~與(=歟): ~~가 아닌가? (歟, 그런가 여)

何故至於斯。屈原曰 舉世皆濁이어늘 我獨
清하고 衆人皆醉어늘 我獨醒이라 是以見放이로라

斯: 이 사. 濁: 흐릴 탁 ↔ 清: 맑을 청
見: 당할 견. 醉: 취할 취 ↔ 醒: 술깰 성

문법설명:

何故: 무슨 까닭으로

舉世: 온 세상

是以: 이 때문에, 이런 까닭으로

見: 見+동사, 見+放 추방을 당하다. 피동형

漁父曰 聖人은 不凝滯於物하고 而能與世
推移하나니 世人皆濁이어든 何不溷其泥而揚其波
하며 何不餉其糟而歠其醨。何故로 深思高舉하
여 自令放爲오

글자 설명

凝: 엉길 응.

滯: 막힐 체.

推: 밀 추.

溷: 흐릴 굴, 휘저을 굴

泥: 진흙 니. 흙탕물

揚: 오를 양, 일으킬 양

餉: 먹일 포. 마시다

糟: 술 지게미 조.

歠: 마실 철

醨: 삼삼한술 리

舉: 들 거, 처신하다.

令: ~로 하여금 ~하게 하다.

漁父曰 聖人은 不凝滯於物하고 而能與世
推移하나니 世人皆濁이어든 何不(溷其泥而揚其
波)하며 何不(餔其糟而歠其醨)오 何故로 深思
高舉하여 自令放爲오

문법설명:

凝滯: 엉키고 막히다.

於: ~에 대하여 物: 세상의 만물

與世推移: 세상을 따라 상황에 맞게 변한다.

何不: 어찌 ~하지 않는가?

而: 濁而揚 / 餔而歠

令: 令+동사, 令+放 추방되게 하다. 사역형

何故~爲: 무슨 까닭으로 ~하였는가?

屈原曰 吾聞之하니 (新沐者는 必彈冠하고
新浴者는 必振衣)라 安能以(身之察察)로
受物之汶汶者乎아

彈: 탄알 탄, 털다. 察察: 깨끗한 모양
汶汶(문문): 더럽고 지저분한 모양

문법설명:

之: 그것, 대명사 新沐者～必振衣

安～～乎: 어찌 ～～하겠는가?

以: ～로, ～로써

身之察察(굴원) ↔ 物之汶汶者(당시 조정)

寧赴湘流_{하여} 葬於江魚之腹中_{이연정} 安能
以皓皓之白_{으로} 而蒙世俗之塵埃乎_아

赴: 달릴 부
皓: 훨 호

湘: 강이름
塵: 티끌 진

葬: 장사지낼 장
埃: 티끌 애

문법설명:

寧: 차라리 ~할지언정

於: ~에서

安~~乎: 어찌 ~~하겠는가?

皓皓之白: 희디흰 결백한 몸 (**굴원**)

以: ~로써

蒙: 입다 뒤집어 쓰다. 피동

漁父莞爾而笑하고 鼓枻而去에 乃歌曰 滄
浪之水清兮 어든 可以濯吾纓이요 滄浪之水濁
兮 어든 可以濯吾足이라하고 遂去하여 不復與言하다

莞: 빙그레 완 枣: 노 예, 뱃전 灌: 씻을 탁
纓: 갓끈 영

문법설명:

莞爾: 빙그레 웃는 모양 (爾=然)

兮: 운율, 어기를 잠시 멈춤, 離, 賦에 쓰임

可以+(동사) : (동사) 하면 된다.

창랑지수: 清(태평시대) ↗濯吾纓, 벼슬함

濁(난세) ↗濯吾足, 은둔함

陳情表

☞ 작자소개

이밀: 字 令伯, 촉한에 출사 상서랑이 됨.

조모 봉양으로 벼슬사양, 조모 사후 한중태수가 됨

☞ 작품소개

이밀이 晉 武帝에게 올린 상주문

할머니의 손에 양육된 이밀이 조모의 병환으로 벼슬을 사양하는 글.

조모에 대한 효심이 담긴 글

臣密言 하노이다 臣以(險饑)으로 凤遭閔凶 하여 生
孩六月에 慈父見背하고 行年四歲에 舅奪母志하니
祖母劉閔(臣孤弱)하여 躬親撫養이라 臣少多疾
病 하여 九歲不行하고 零丁孤苦 하여 至於成立하니이
다

險饑(험흔): 죄 많은 신세 閔凶(민흉):재앙, 부모의 죽음

夙: 이를 숙

遭: 만날 조

生孩:어린아이.

行年: 나이

舅: 외삼촌 구

躬親: 몸소, 친히

撫: 어루만질 무

零丁:쓸쓸하게

문법설명:

以: ~로

見背: 버려짐을 당하다. 아버지가 죽다

於: ~에

既無叔伯하고 終鮮兄弟라 門衰祚薄하여 晚有兒
息하니 外無暮功強近之親이오 內無應門五尺之
僮이라 禟子立하여 形影相弔어늘 而劉夙嬰疾病하여
常在牀褥하니 臣侍湯藥하여 未嘗廢離하니이다

衰: 쇠할 쇠 祚:복 조 兒息:자식

暮功: 기(1년복) 공(功服 5, 9개월복), 친척

僮: 아이 동(童)/ 禟: 외로운 모양(禧:외로울경)

子:외로울 혈/ 形影: 형체와 그림자/ 相弔: 의지할 곳 없음

嬰:묶을 영, 걸리다(攫) 牀褥(상욕): 침상과 요, 병석

문법설명:

既~終~: 이미 ~하고, 끝내 ~하다

之: 관형격 ~하는 ~의

逮奉聖朝_{하여는} 沐浴清化_{하여} 前太守臣達_는 察臣孝廉_{하고} 後刺史臣榮_은 舉臣秀才_나 臣以(供養無主)로辭不赴命_{이려니} 詔書特下_{하사} 拜臣郎中_{하시고} 尋蒙國恩_{하여} 除臣洗馬_{하시니} 猥以(微賤)으로 當侍東宮_{이라} 非(臣隕首所能上報)_{니이다}

逮: 미칠 체

沐浴: 흠뻑 입다.

主: 주인 주 맡아하다.

尋: 이윽고 심

猥: 함부로 외, 외람되게

聖朝(성조): 성스러운 조정, 晉나라

察: 살필 찰, 추천하다.

拜: 절 배, 벼슬을 주다

除: 섬돌 제, 제수하다.

隕: 떨어질 운, 죽다

문법설명:

以: 때문에, 이유로

以: ~로

臣具以表聞 하여 辭不就職 이려니 詔書切峻 하여 責臣逋
慢 하시고 郡縣逼迫 하여 催臣上道 하며 州司臨門 하여 急於
星火 라 臣欲(奉詔奔馳) 인댄 則劉病日篤 이요 欲(苟
順私情) 인댄 則告訴不許 하니 臣之進退 는 實爲狼狽 로소
이다

辭: 사직하다. 逋: 달아날 포 催: 재촉할 죄

星火(성화): 별똥별, 빠르고 급함

奔馳(분치): 빨리 달려가다 篤: 도타울 독, 위독하다.

苟: 잠시 實: 실로 狼狽(낭패): 어찌할 줄 모르다.

문법설명:

於= ~보다, 형용사+於는 비교로 쓰임

欲: 하고자하다. 조동사

之: ~의, 관형격

伏惟聖朝가 以(孝)治天下 하사 凡在(故老)에도 猶蒙
矜育하니 況臣孤苦가 特爲尤甚이라이까 且臣少事僞朝
하여 歷職郎署나 本圖宦達이요 不矜名節이라 今臣은亡
國賤俘로 至微至陋어늘 過蒙拔擢하여 寵命優渥이라 豈
敢盤桓하여 有所(希冀)리이까

伏惟(복유): 엎드려 생각하건대 矜: 불쌍히 여길 긍
事: 섬길 사, 圖: 도모할 도 宦達(환달): 관리로 출세함
矜: 자랑할 긍 俘: 포로 부 過: 과분하게
拔: 뽑을 발 擢: 뽑을 탁 渥: 두터울 악
寵: 사랑 총 盤桓(반환): 머뭇거리다 希冀(희기): 바라는 것

문법설명:

猶～況～: 오히려 ~에게도, 하물며 ~은

豈敢～有: 어찌 감히 ~가 있겠는가?

但以(劉日薄西山)하여 氣息奄奄하니 人命危淺하여
朝不慮夕이라 臣無祖母면 無以至今日이요 祖母無
臣. 이면 無以終餘年. 이니 母孫二人. 이 更相爲命이라 是
以區區하여 不能廢遠. 이로소이다

薄: 얇을 박

奄奄(엄엄): 갸냘프니

更: 다시 경, 번갈아

廢: 폐할 폐

西山:수명이 얼마 남지 않다.

淺: 얕을 천, (危淺 위태롭다)

區區(구구): 작디 작은

문법설명:

但以: 다만 ~때문에

無以+(동사): (동사) 할 수 없다.

是以: 이 때문에

不能: 할 수 없다.

臣密_은 今年四十有四_요 祖母劉_는 今年九十有六_{이니} 是臣盡節於陛下之日_은 長_{하고} 報劉之日_은 短也_라 烏鳥私情_{으로} 願乞終養_{하노이다}

陛: 섬돌 폐

烏鳥私情(오조사정): = 反哺之孝

길러준 어미새에게 은혜를 갚는 까마귀의 정

願乞(원걸): 원하옵건대 빕니다. 원하고 바라다.

終: 끝까지

문법설명:

有: 나이에서 십과 일 단위 뒤에 쓰임

之: ~하는

於: ~에 대하여

臣之辛苦는 非獨蜀之人士와 及二州牧伯의 所(見明知)요 皇天后土가 實所(共鑑)이시니 帥陛下는 矜憫愚誠하사 聽臣微志하소서 庶劉僕倖하여 保卒餘年이면 臣生當隕首요 死當結草리이다 臣不勝犬馬怖懼之情하여 謹拜表以聞하노이다

辛苦(신고): 괴로움 皇天(황천): 하늘 后土(후토): 토지신
實:실로 鑑: 볼 감 愚誠(우성): 어리석은 정성, 겸손
庶: 바라건대 僕候(요행): 다행히
隕首(운수): 목숨을 바치다.
怖懼(포구): 두려워하다. 聞: 아뢰다.

문법설명:

二州:양주와 익주

非獨: ~뿐만 아니라

及: ~와, 과 / 명사와 명사 접속

감사합니다.

